

朴-文, 수도권 격돌...부동층 공략 사활

朴 “중산층 70% 복원” vs 文 “필수생활비 절반 시대” 약속

12·19 대선을 12일 앞두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6일 본격적인 수도권 공략에 나섰다.

전체 유권자의 절반 가량인 49.3%가 거주하는 수도권 유권자의 항배에 따라 대선전의 승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고 때문이다.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 유권자는 2000만7473명으로 전체 유권자 4052만6767명 중 절반을 차지하며, 수도권은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수도권 유권자는 지역감정이 덜한데다 여·야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 중도·무당파가 두터운 만큼 여·야는 이 지역의 표심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국 대세를 가

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새누리당은 박 후보의 수도권 지지율을 최소화한 문제와 대등한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 하에 집중적인 득표 활동에 들어갔다. 당선대위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은 6일 “부산·충청·강원의 흐름이 관건이었

고 호남도 두자릿수 지지를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며 막판 타격은 수도권에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기도 안산·부천·안양·성남을 돌며 유세에 나선 박 후보는 7일에도 당 취약지역이나 서울 통근권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중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 측은 가계

부담완화·무상보육 등을 중심으로

한 ‘중산층 70% 복원’ 공약과 실천 의지로 표심을 파고들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이날 문 후보를 공식 지지 선언했지만 선거 관세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일축하면서도 부동층 표심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막판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수도권의 야권 성향의 표를 여당에 내주지 않고 재결집시키는 ‘범야권 대결집’ 전략이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의료·주거 등 3대 가계 지출을 대폭 줄여 ‘필수생활비 절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북지는 민생이고 민생이야말로 새 정치”라며 일선·출산 관

련 필수의료비 전액 국가 부담, 필수 예방접종 항목 확대 및 무상 제공,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초·중고 12년 무상 교육, 반값등록금 실천을 약속했다.

전날 서울의 대학가를 돌며 젊은층 표심잡기에 주력했던 그는 이날도 수도권을 순회하며 민생정치와 정권교체를 호소했다. 그는 이날 오후 의정부, 성남, 수원에서 거리 유세에 나섰다.

한편, 안 전 후보 측이 이르면 7일부터 문 후보에 대한 유세 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문 후보 측은 이를 지지할 뜻을 밝히며 “필수생활비 절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북지는 민생이고 민생

이야말로 새 정치”라며 일선·출산 관

련 필수의료비 전액 국가 부담, 필수

예방접종 항목 확대 및 무상 제공, 공

공산후조리원 설치, 초·중고 12년 무

상 교육, 반값등록금 실천을 약속했

다.

전날 서울의 대학가를 돌며 젊은층

표심잡기에 주력했던 그는 이날도 수

도권을 순회하며 민생정치와 정권교

체를 호소했다. 그는 이날 오후 의정

부, 성남, 수원에서 거리 유세에 나

섰다.

한편, 안 전 후보 측이 이르면 7일

부터 문 후보에 대한 유세 지원을 검

토키로 했다. 문 후보 측은 이를 지

지할 뜻을 밝히며 “필수생활비 절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북지는 민생이고 민생

이야말로 새 정치”라며 일선·출산 관

련 필수의료비 전액 국가 부담, 필수

예방접종 항목 확대 및 무상 제공, 공

공산후조리원 설치, 초·중고 12년 무

상 교육, 반값등록금 실천을 약속했

다.

전날 서울의 대학가를 돌며 젊은층

표심잡기에 주력했던 그는 이날도 수

도권을 순회하며 민생정치와 정권교

체를 호소했다. 그는 이날 오후 의정

부, 성남, 수원에서 거리 유세에 나

섰다.

한편, 안 전 후보 측이 이르면 7일

부터 문 후보에 대한 유세 지원을 검

토키로 했다. 문 후보 측은 이를 지

지할 뜻을 밝히며 “필수생활비 절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북지는 민생이고 민생

이야말로 새 정치”라며 일선·출산 관

련 필수의료비 전액 국가 부담, 필수

예방접종 항목 확대 및 무상 제공, 공

공산후조리원 설치, 초·중고 12년 무

상 교육, 반값등록금 실천을 약속했

다.

전날 서울의 대학가를 돌며 젊은층

표심잡기에 주력했던 그는 이날도 수

도권을 순회하며 민생정치와 정권교

체를 호소했다. 그는 이날 오후 의정

부, 성남, 수원에서 거리 유세에 나

섰다.

한편, 안 전 후보 측이 이르면 7일

부터 문 후보에 대한 유세 지원을 검

토키로 했다. 문 후보 측은 이를 지

지할 뜻을 밝히며 “필수생활비 절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북지는 민생이고 민생

이야말로 새 정치”라며 일선·출산 관

련 필수의료비 전액 국가 부담, 필수

예방접종 항목 확대 및 무상 제공, 공

공산후조리원 설치, 초·중고 12년 무

상 교육, 반값등록금 실천을 약속했

다.

전날 서울의 대학가를 돌며 젊은층

표심잡기에 주력했던 그는 이날도 수

도권을 순회하며 민생정치와 정권교

체를 호소했다. 그는 이날 오후 의정

부, 성남, 수원에서 거리 유세에 나

섰다.

한편, 안 전 후보 측이 이르면 7일

부터 문 후보에 대한 유세 지원을 검

토키로 했다. 문 후보 측은 이를 지

지할 뜻을 밝히며 “필수생활비 절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북지는 민생이고 민생

이야말로 새 정치”라며 일선·출산 관

련 필수의료비 전액 국가 부담, 필수

예방접종 항목 확대 및 무상 제공, 공

공산후조리원 설치, 초·중고 12년 무

상 교육, 반값등록금 실천을 약속했

다.

전날 서울의 대학가를 돌며 젊은층

표심잡기에 주력했던 그는 이날도 수

도권을 순회하며 민생정치와 정권교

체를 호소했다. 그는 이날 오후 의정

부, 성남, 수원에서 거리 유세에 나

섰다.

한편, 안 전 후보 측이 이르면 7일

부터 문 후보에 대한 유세 지원을 검

토키로 했다. 문 후보 측은 이를 지

지할 뜻을 밝히며 “필수생활비 절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북지는 민생이고 민생

이야말로 새 정치”라며 일선·출산 관

련 필수의료비 전액 국가 부담, 필수

예방접종 항목 확대 및 무상 제공, 공

공산후조리원 설치, 초·중고 12년 무

상 교육, 반값등록금 실천을 약속했

다.

전날 서울의 대학가를 돌며 젊은층

표심잡기에 주력했던 그는 이날도 수

도권을 순회하며 민생정치와 정권교

체를 호소했다. 그는 이날 오후 의정

부, 성남, 수원에서 거리 유세에 나

섰다.

한편, 안 전 후보 측이 이르면 7일

부터 문 후보에 대한 유세 지원을 검

토키로 했다. 문 후보 측은 이를 지

지할 뜻을 밝히며 “필수생활비 절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북지는 민생이고 민생

이야말로 새 정치”라며 일선·출산 관

련 필수의료비 전액 국가 부담, 필수

예방접종 항목 확대 및 무상 제공, 공

공산후조리원 설치, 초·중고 12년 무

상 교육, 반값등록금 실천을 약속했

다.

전날 서울의 대학가를 돌며 젊은층

표심잡기에 주력했던 그는 이날도 수

도권을 순회하며 민생정치와 정권교

체를 호소했다. 그는 이날 오후 의정

부, 성남, 수원에서 거리 유세에 나

섰다.

한편, 안 전 후보 측이 이르면 7일

부터 문 후보에 대한 유세 지원을 검

토키로 했다. 문 후보 측은 이를 지

지할 뜻을 밝히며 “필수생활비 절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북지는 민생이고 민생

이야말로 새 정치”라며 일선·출산 관

련 필수의료비 전액 국가 부담, 필수

예방접종 항목 확대 및 무상 제공, 공

공산후조리원 설치, 초·중고 12년 무

상 교육, 반값등록금 실천을 약속했

다.

전날 서울의 대학가를 돌며 젊은층

표심잡기에 주력했던 그는 이날도 수

도권을 순회하며 민생정치와 정권교

체를 호소했다. 그는 이날 오후 의정

부, 성남, 수원에서 거리 유세에 나

섰다.

한편, 안 전 후보 측이 이르면 7일

부터 문 후보에 대한 유세 지원을 검

토키로 했다. 문 후보 측은 이를 지

지할 뜻을 밝히며 “필수생활비 절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북지는 민생이고 민생

이야말로 새 정치”라며 일선·출산 관

련 필수의료비 전액 국가 부담, 필수

예방접종 항목 확대 및 무상 제공, 공

공산후조리원 설치, 초·중고 12년 무

상 교육, 반값등록금 실천을 약속했

다.

전날 서울의 대학가를 돌며 젊은층

표심잡기에 주력했던 그는 이날도 수

도권을 순회하며 민생정치와 정권교

체를 호소했다. 그는 이날 오후 의정

부, 성남, 수원에서 거리 유세에 나

섰다.

한편, 안 전 후보 측이 이르면 7일

부터 문 후보에 대한 유세 지원을 검

토키로 했다. 문 후보 측은 이를 지

지할 뜻을 밝히며 “필수생활비 절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북지는 민생이고 민생

이야말로 새 정치”라며 일선·출산 관

련 필수의료비 전액 국가 부담, 필수

예방접종 항목 확대 및 무상 제공, 공

공산후조리원 설치, 초·중고 12년 무

상 교육, 반값등록금 실천을 약속했

다.

전날 서울의 대학가를 돌며 젊은층

표심잡기에 주력했던 그는 이날도 수

도권을 순회하며 민생정치와 정권교

체를 호소했다. 그는 이날 오후 의정

부, 성남, 수원에서 거리 유세에 나

섰다.

한편, 안 전 후보 측이 이르면 7일

부터 문 후보에 대한 유세 지원을 검

토키로 했다. 문 후보 측은 이를 지

지할 뜻을 밝히며 “필수생활비 절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북지는 민생이고 민생

이야말로 새 정치”라며 일선·출산 관

련 필수의료비 전액 국가 부담, 필수

예방접종 항목 확대 및 무상 제공, 공

공산후조리원 설치, 초·중고 12년 무

상 교육, 반값등록금 실천을 약속했

다.

전날 서울의 대학가를 돌며 젊은층

표심잡기에 주력했던 그는 이날도 수

도권을 순회하며 민생정치와 정권교

체를 호소했다. 그는 이날 오후 의정

부, 성남, 수원에서 거리 유세에 나

섰다.

한편, 안 전 후보 측이 이르면 7일

부터 문 후보에 대한 유세 지원을 검

토키로 했다. 문 후보 측은 이를 지

지할 뜻을 밝히며 “필수생활비 절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북지는 민생이고 민생

이야말로 새 정치”라며 일선·출산 관

련 필수의료비 전액 국가 부담, 필수

예방접종 항목 확대 및 무상 제공, 공

공산후조리원 설치, 초·중고 12년 무

상 교육, 반값등록금 실천을 약속했

다.

전날 서울의 대학가를 돌며 젊은층

표심잡기에 주력했던 그는 이날도 수

도권을 순회하며 민생정치와 정권교

체를 호소했다. 그는 이날 오후 의정

부, 성남, 수원에서 거리 유세에 나

섰다.

한편, 안 전 후보 측이 이르면 7일

부터 문 후보에 대한 유세 지원을 검

토키로 했다. 문 후보 측은 이를 지

지할 뜻을 밝히며 “필수생활비 절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북지는 민생이고 민생

이야말로 새 정치”라며 일선·출산 관

련 필수의료비 전액 국가 부담, 필수

예방접종 항목 확대 및 무상 제공, 공

공산후조리원 설치, 초·중고 12년 무

상 교육, 반값등록금 실천을 약속했

다.

전날 서울의 대학가를 돌며 젊은층

표심잡기에 주력했던 그는 이날도 수

도권을 순회하며 민생정치와 정권교

체를 호소했다. 그는 이날 오후 의정

부, 성남, 수원에서 거리 유세에 나

섰다.

한편, 안 전 후보 측이 이르면 7일

부터 문 후보에 대한 유세 지원을 검

토키로 했다. 문 후보 측은 이를 지

</